

A Study on the Typology of Latent Profiles and Influencing Factors Based AI Service Usage by the Youth

Min Soo Kim*, Woo Hong Cho*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Chung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latent profiles based on the level of AI service usage across various domains among youth an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se profiles. To this end, data from the '2024 Digital Divide Survey' were utilized, with a final sample of 573 youth aged 19 to 34. A 3-step approach was applied to conduct a latent profile analysis(LPA) an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level of AI service usage, the youth were classified into three distinct latent profiles: a 'Low AI service Usage Group', a 'Medium AI Service Usage Group', and a 'High AI Service Usage Group'. Second, the result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each latent profile, revealed that youth with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digital technology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Medium AI Service Usage Group'. Furthermore, those who had a college degree or higher, higher monthly average income, and higher life satisfaction were also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High AI Service Usage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providing customized AI education and establishing institutional support systems to promote the active use of AI services among youth.

▶ **Key words:** AI Services, Youth, Digital Literacy, Digital Mastery, AI Acceptance, Potential Profile Analysis

[요 약]

본 연구는 청년층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을 유형화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2024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34세까지의 청년층 573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3단계 분석방법을 적용한 잠재프로파일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첫째,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따라 'AI 서비스 사용 수준 낮은 집단', 'AI 서비스 사용 수준 중간 집단', 'AI 서비스 사용 수준 높은 집단'의 세 개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유형화된 잠재프로파일에 속하게 되는 청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AI 서비스 사용 수준 높은 집단'에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수준이 긍정적인 청년층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I 서비스 사용 수준 높은 집단'에는 대학 졸업 이상일수록, 월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청년층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활성화를 위한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AI 서비스, 청년층,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기기 효능감, AI 수용성, 잠재프로파일분석

- First Author: Min Soo Kim, Corresponding Author: Woo Hong Cho
- *Min Soo Kim (kmulysses@seowon.ac.kr), Dep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 *Woo Hong Cho (csdcj@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 Received: 2026. 09. 07, Revised: 2026. 10. 02, Accepted: 2026. 10. 06.

I. Introduction

2026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의 취업에 있어 경력설계, 이력서 컨설팅 등에 대한 AI 활용 수요가 높으며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취업준비생과 기업을 연결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1]. 뿐만 아니라 2025 언론수용자 조사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세대는 20대(50.7%)와 30대(38.5%)인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AI의 사용이 점차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층에게는 향후 과업 수행에 있어 AI 사용이 필수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2025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목적을 확인한 결과 20~29세는 '정보검색(37.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학업용(28.3%)', '업무용(22.8%)'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39세는 '업무용(26.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비중으로 '정보탐색(46.6%)'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3]. 20대와 30대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이 '정보탐색'과 '업무용'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며 특히 학생의 비중이 높은 20대는 '학업용'으로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청년층이라고 할지라도 연령에 따라 AI 사용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령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AI 사용 목적과 빈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청년층의 삶에서 AI 사용이 일상화되고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기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청년층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구독료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4]. 이 외에도 청년층의 AI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는 청년 AI 사다리, 청년취업사관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삼성, LG 포스코 등 기업 차원에서도 청년층의 AI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5, 6, 7]. 이러한 지원은 청년층의 삶에서 AI의 사용이 필수이며 중요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사회적 변화와 함께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인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AI이지만 아직까지 AI에 대한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 또한 존재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 2025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여부에서 20대(35.9%)와 30대(28.9%)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3]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20대의 약 60%, 30대의 약 70%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관의 통계 수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AI 사용에 있어서 청년층 내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청년층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청년층의 AI 이용 격차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특정 변인 간 단편적인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변인 중심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9, 10, 20]. 이러한 변인 중심 접근으로는 청년층 내부에 존재하는 다차원적인 특성과 이질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10, 20]. 청년층이 단순히 AI 서비스 이용 여부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업과 업무 등 일상생활에서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등 청년층 내부에서의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3, 9]. 이에 이들을 단일한 동질적 집단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실제 응답 패턴에 기반해 청년층 내부의 이질적인 하위 집단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청년층의 AI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AI 서비스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청년층 내에서 AI 서비스 사용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층 내에서의 AI 서비스 사용의 차이는 향후 청년층의 삶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청년층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AI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현황

마이크로소프트 AI Economy Institute에서 발간한 'Global AI Diffusion Q1 2026 Trends and Insights'에서는 우리나라의 생성형 AI 사용률이 2025년 4분기에 비해 약 6.4%p 상승한 37.1%로 집계되었으며 이러한 상승

세는 2025년 6월 이후 AI 사용자 비중 증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AI 사용은 챗봇과 검색, 콘텐츠 제작,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에 AI가 접목되면서 AI 사용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8].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AI의 일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AI 사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는 생성형 AI를 호기심, 지인의 추천, 업무 및 학업적 필요성을 계기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생은 과제 작성 및 논문 요약, 외국어 학습 등의 목적으로, 직장인은 기획서 작성, 영상 편집 업무 중 보조 도구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 및 직장인은 각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성형 AI는 20~30대의 일상에서 '협업하는 파트너', '필수 불가결한 도구'라는 용어로 일컬어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9]. 결국 이는 20~30대의 일상생활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사용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AI 사용의 일상화는 청년층의 다양한 과업 수행 시 AI 서비스를 과거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AI 사용 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AI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청년층 또한 존재한다. 일부 청년층은 AI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출된 결과물의 신뢰도가 부족하거나 결과물의 품질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에 대한 교차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9]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을 가로 막는 방해 요인은 AI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인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AI 서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AI 서비스의 수용 및 활용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개념에서는 기술수용성, 사용의도, 그리고 사용빈도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기술수용성 개념을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기술수용 모형이나 통합기술수용이론 등을 기반하여 수행되었는데 [11, 20, 21], 이는 AI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가 지각하는 유용성, 용이성 등의 인지적 평가가 미래의 지속적인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사용빈도 및 활용 수준 개념을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AI 서비스 사용자

의 실질적인 기술 이용 정도를 연속형 변수로 측정하여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10]. 이처럼 AI 서비스 사용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변수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중 AI 서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는 AI 서비스 사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있다[10, 11]. 우선 대학생의 AI 기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성별, 대학소재지, SNS 및 인터넷 이용, 기술발전에 대한 기대, 자기이해 요인은 AI 기반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그리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AI 기반 조건으로 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성별, 소득수준,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과거 기술 경험, AI 유익 인식 수준, AI 신뢰 인식 수준이 AI 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11].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11] 대학생이라는 일부 청년층에 한정하는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점[10], 대학생의 AI 기반 서비스 이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을 파악하였다는 점[10, 11]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청년층 전체의 특징을 포함하여 AI 서비스 사용 수준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청년층 내에서도 AI 서비스의 사용 수준이 다르지만 이를 변수의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AI 사용 수준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러한 특징에 따라 분류된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34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AI 서비스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잠재프로파일을 유형화하여 청년층 내에서 AI 서비스 사용의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가진 청년층이 AI 서비스 사용 잠재프로파일에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arget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국민의 정보격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여

수집한 '2024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의 디지털 기기 및 AI 서비스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따라 잠재집단을 구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잠재집단에 속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정의에 따라 19~34세의 청년층이다. '2024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에서는 총 7,000명의 응답자가 있으며 이 중에서 19~34세까지의 청년층은 총 1,570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1,570명의 청년층 중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인 'AI 서비스 사용 수준' 하위 8개의 문항에 응답하지 않아 발생한 케이스를 분석에서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573명의 청년층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인 573명의 구체적인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19~24세는 142명(24.8%), 25~29세는 261명(45.5%), 그리고 30~34세는 170명(29.7%)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27.17세(SD=4.29)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층 1,570명에서 약 63.5%에 해당하는 사례가 분석에서 제외된 것은 설문조사의 구조적 필터링 설계로 인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서는 AI 서비스 사용 수준을 측정할 때 각 서비스에 대한 사전 인지도 여부를 묻는 문항을 배치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하위 문항인 사용 빈도 문항에 응답할 수 없도록 배제되었다. 이에 종속변수인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대한 8개 하위 문항별로 제외된 결측 케이스를 확인한 결과 1번 문항에서 499명, 2번 문항에서 79명, 3번 문항에서 149명, 4번 문항에서 104명, 5번 문항에서 116명, 6번 문항에서 6명, 7번 문항에서 25명, 8번 문항에서 19명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규모 표본의 감소는 무작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AI 서비스 미인지'로 인한 조사 설계상의 누락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을 구체화하는 타당한 통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Key Variables

2.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서 유형화된 'AI 사용 수준'이며 동 자료에서 사용한 문항은 "귀하는 인공지능(AI)이 구현되는 아래 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제 얼마나 활용했는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를 표시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 중 활용 정도를 측정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을 유형화하기 위한 8가지 하위 변수로는 '1) 교육/학습(맞춤형 학습, AI언어학습앱, 교육용 로봇)', '2) 주거 편의(로봇청소기, IoT가전기기 등)', '3) 커뮤니케이션/친교(챗봇 상담 서비스, 말벗 AI 로봇 등)', '4) 미디어(맞춤형 음악 및 영상 등 추천/큐레이션, 사진 및 영상 편집기능 등)', '5) 금융(맞춤형 자산관리, 머신러닝을 통한 위험예측 등)', '6) 교통(운전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등)', '7) 헬스케어(AI 운동 코치, AI 식단관리 솔루션, 영양정보 분석 등)', '8) AI 기반 대화형 정보검색(챗 지피티, 바드, 아속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변수에 대한 응답은 '① 전혀 없다'부터 '④ 자주 있다'까지의 4점 척도를 통해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2.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본 연구는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따라 유형화된 잠재프로파일에 어떤 청년층이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에 본 연구의 유사한 주제로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요소와 디지털 기술 및 AI 관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독립변수로서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인구사회학적 요소로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족 구성원 수, 월 평균 소득, 삶의 만족 수준을 투입하였다. 성별과 교육 수준은 각각 남성과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를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더미변수로 만들어 투입하였다. 그리고 연령, 가족 구성원 수, 월 평균 소득, 삶의 만족 수준은 연속형 변수로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술 및 AI 관련 수준에 대한 요소로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수준(Digital Literacy), 디지털 기기 이용 효능감 수준(Digital Mastery),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인식 수준(AI Acceptance) 변수를 투입하였다. 우선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수준은 총 4문항으로서 '1) 디지털 기술은 유용하다', '2) 디지털 기술은 내 삶을 편리하게 한다', '3) 디지털 기술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4) 디지털 기술을 더 많이 이용하고 싶다'로 구성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에 각 문항을 합산 및 평균한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기 이용 효능감 수준은 총 4문항으로서 '1) 나는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데 자신이 있다', '2) 나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데 자신이 있다', '3) 나는 새로운 디지털 기기의 사용방법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 '4) 디지털 기기를 더 많이 이용하고 싶다'로 구성된 문항

을 활용하였다. 이에 각 문항을 합산 및 평균한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기기 이용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인식 수준은 총 10 문항으로서 '1) 더욱 편리하고 좋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2) 개인정보침해 등 보안 위협이나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될 것이 우려', '3) AI가 발전할수록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4) 기술의 편향으로 인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불공정을 야기할 것', '5) AI 발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6) AI 기술이 인간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게 될 것이 우려됨', '7) AI 기술은 다양한 방면에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 '8) AI 기술로 인한 혜택은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으며, 빈부격차를 강화시킬 것', '9) 인류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10)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구성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 중에서 2), 4), 6), 8) 문항을 역문항 처리한 후 각 문항을 합산 및 평균한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인식 수준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수준(Digital Literacy), 디지털 기기 이용 효능감 수준(Digital Mastery),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인식 수준(AI Acceptance) 척도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수준(Digital Literacy)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42, 디지털 기기 이용 효능감 수준(Digital Mastery)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43,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인식 수준(AI Acceptance)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85로 도출되어 통계적 분석을 위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Analysis Method

본 연구는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유형화하고, 유형화된 잠재프로파일에 속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통적인 회귀분석이 변수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변수 중심 접근법이었던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이는 개인들을 그룹화하는 사람 중심 접근법이다 [12, 13]. 이에 잠재프로파일분석은 동일한 변수라도 개인별 응답 패턴이 고려될 수 있으며 모집단 평균이 아닌 개별 특성을 반영한 집단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의 변수 중심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을 단일한 변수로 생성하여 청년층 전체의 특성을 단편화하였다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사용할 경우 개인 단위에서 영역별 AI 서비스 활용이 어떻게 다차원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패턴 정보를 규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3단계 접근법(Three-Step Approach)을 적용할 수 있다. 3단계 접근법은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 추정된 집단 분류와 이후 이어지는 분석 간의 불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서 첫 번째 단계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최적의 집단 수와 분류 결과를 도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응답자의 잠재집단 소속 확률을 추정하여 분류 오차를 계산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분류 오차를 기반하여 독립변수 및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14]. 이러한 3단계 접근법을 통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기반으로 한 후속 분석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최적의 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적 기준을 고려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AIC, BIC, SABIC의 정보적합도 지수, LMR 및 BLRT 검증 모형, 그리고 엔트로피(Entropy)와 같은 통계적 기준을 활용하였다[15, 16, 17]. 이러한 통계적 과정은 Mplus와 STATA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IV. Analysis Results

1. Types of AI Service Usage Levels Among Youth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따라 잠재프로파일분석의 3단계 접근법 중 1, 2단계를 거쳐 기본모형을 분석하고 정보지수, 모형검증 지표, 분류에 관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하며 검증하였으며 각 모형의 구체적인 지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그리고 적합한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수를 2개부터 증가시키면서 모형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우선 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 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LMRT와 BLRT 역시 4개 모델까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엔트로피(Entropy) 지수 역시 모든 모형에서 .80 이상을 상회하여 준수하게 분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각 모형 중 다양한 지수를 활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확인해 본 결과 잠재프로파일 수는 3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다양한 지수 정보 중 정보지수의 값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개에서 3개 모델에서의 값

차이와 3개에서 4개 모델에서의 값 차이를 비교해 보면 3개에서 4개 모델에서의 값 차이가 더 완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요인 분석을 할 때 스크리 도표 (Scree Plot)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에서 요인 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할 수 있다[22, 23]. 그리고 3개 모델 및 4개 모델은 분류 비율이 고르게 나타나지만 4개 모델의 분류 비율은 일부 집단의 규모가 편파화되어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에 비해 3개 모델은 안정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잠재프로파일 3개 모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Table 1. Potential Profile Classification Criteria

Classification Criteria		Number of Potential Profiles		
		Model 2	Model 3	Model 4
Information Index	AIC	11402.899	11001.995	10827.627
	BIC	11511.672	11149.925	11014.715
	SABIC	11432.307	11041.989	10878.209
Model Comparison Verification	LMRT	<.001	<.05	<.05
	BLRT	<.001	<.001	<.001
Entropy		.875	.869	.89%
Group Classification Rate	1	0.473	0.391	0.368
	2	0.527	0.431	0.316
	3		0.178	0.122
	4			0.194

최종 채택된 잠재프로파일 3개 모형의 분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사후확률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 사후확률은 80%(.80) 이상일 때 집단 분류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는데 Table 2를 살펴보면 유형 1이 96.1%, 유형 2가 93.3%, 유형 3이 90.3%로 나타나 모든 유형의 평균 사후확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잠재프로파일 수 3개 모형이 타당한 분류임을 확인하였다.

Table 2. Average Posterior Probabilities by Latent Profile

Criteria	Type 1	Type 2	Type 3
Type 1	.961	.039	.000
Type 2	.030	.933	.038
Type 3	.000	.097	.903

2. Meaning of Latent Profile Types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을 유형화하였으며 그 결과 3개의 잠재프로파일로 구성된 모형이 가장 적합하였다. 이에 3개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우선 유형 1은 전체 분석 대상 중 224명(39.1%)이 포함되었으며 개별 AI 서비스 영역의 사용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영역에서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유형 2는 전체 분석 대상 중 247명(43.1%)이 포함되었으며 개별 AI 서비스 영역의 사용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영역에서의 사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유형 3은 전체 분석 대상 중 102명(17.8%)이 포함되었으며 개별 AI 서비스 영역의 사용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영역에서의 사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고려하여 집단을 명명하고자 하였다. 유형 1은 개별 AI 서비스 영역의 사용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으므로 'AI 서비스 저사용 집단', 유형 2는 개별 AI 서비스 영역의 사용 수준이 유형 1에 비해서는 높고, 유형 3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AI 서비스 중사용 집단', 마지막으로 유형 3은 개별 AI 서비스 영역의 사용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으므로 'AI 서비스 고사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Table 3. Sub-Factor Scores by Type of AI Service Usage Level among Young Adults

(Unit: Points)

Division	Type 1 (N= 224)	Type 2 (N= 247)	Type 3 (N= 102)
	Mean(SE)		
Education /Learning	1.351	1.928	2.948
Housing Convenience	1.548	2.602	3.048
Communication /Socializing	1.274	2.387	3.044
Media	1.279	2.705	3.309
Finance	1.131	1.900	2.805
Transportation	1.244	1.841	3.348
Healthcare	1.243	1.935	2.932
AI-based Conversational Information Search	1.286	2.379	3.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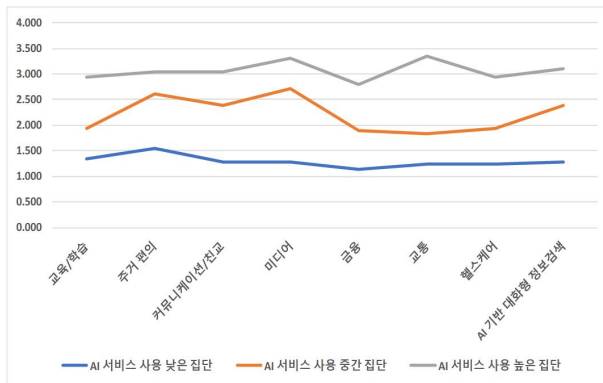


Fig. 1. Characteristics of Potential Profile Types Based on AI Service Usage Levels among Youth

3. Factors Influencing Potential Profiles Based on AI Service Usage Levels Among Youth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으로 도출된 청년층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청년층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은 'AI 서비스 저사용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Analysis Results of Influencing Factors on Potential Profile Types Based on AI Service Usage Levels Among Youth

Division (Ref. Group with Low AI Service Usage)	Group with Middle AI Service Usage			Group with High AI Service Usage		
	B	OR	SE	B	OR	SE
Gender (Ref. Male)	-.080	.923	.193	-.019	.981	.252
Age	-0.15	.985	.028	-.016	.985	.037
Education (Ref. High School Graduate or Lower)	.425	1.529	.267	1.086	2.962**	.387
Number of Household Members	-.412	.662	.329	-.744	.475	.440
Monthly Income	.071	1.073	.064	.193	1.213*	.084
Life Satisfaction	-.165	.848	.201	1.263	3.536***	.301
Digital Literacy	.963	2.620**	.330	.810	2.248	.441
Digital Mastery	.493	1.638	.302	-.763	.466	.414
AI Acceptance	-.525	.591	.310	.191	1.211	.434

* p<.05, ** p<.01, *** p<.001

AI 서비스 중사용 집단과 저사용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수준(Digital Literacy)(OR=2.620, p<.01)이 높을수록 AI 서비스 중사용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AI 서비스 고사용 집단과 저사용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대학 졸업 이상(OR=2.962, p<.01),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OR=1.213, p<.05)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OR=3.536, p<.001) AI 서비스 고사용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청년층이 다양한 영역에서 AI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을 유형화하였고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있어서 다양한 통계적 지수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결과 3개의 잠재프로파일을 유형화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AI 서비스 저사용 집단', 'AI 서비스 중사용 집단', 그리고 'AI 서비스 고사용 집단'으로 유형화 및 명명하였다.

이는 청년층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디지털 및 AI 서비스에 대한 익숙함을 가지고 있어 AI 서비스 사용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청년층 내에서 AI 서비스 사용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국 청년층이라고 해도 청년층이라는 집단 내에서 AI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 또한 존재할 수 있기에 청년층 중 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유형화된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우선 'AI 중사용 집단'에 속하는 특성으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Digital Literacy)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수준이 긍정적일수록 'AI 중사용 집단'에 속하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수록 AI 서비스 사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되었다[10]. 결국 현대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디지털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식이 AI 서비스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청년층은 다양한

방면으로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크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수준은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층 중 대학 이상 졸업한 청년일수록, 월 평균 소득이 높은 청년일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청년일수록 'AI 서비스 고사용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이상 졸업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AI 서비스 사용 수준이 높은 것은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PBL, 캡스톤디자인 등과 같은 AI 기반 적응형 교과목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교육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선행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다[10]. 결국 청년층의 교육 수준뿐만 아니라 AI 서비스와 관련한 교육 여건의 수준에 따라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월 평균 소득이 높은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AI 서비스 사용 수준이 높은 것은 '한국 사회 시선 2025: 분석과 통찰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데 해당 포럼의 발제에서 소득 등에 따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률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월 가구 소득별로 보았을 때 500만 원 이상 계층은 200만 원 미만 계층보다 AI 서비스 이용률이 약 3.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크다는 점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AI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소득에서의 취약계층을 주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8]. 결국 AI 서비스 사용 시 추가적인 요금 결제를 통해 더 나은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이러한 특징은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지 않는 초기 청년층에게 있어 더욱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진다.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생애주기의 특성상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로서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AI 서비스는 청년층의 삶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AI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대의 특성상 디지털 및 AI 기술과 기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세대에 비해 친숙한 측면이 있기에 AI 서비스는 청년층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 수준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방안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수준이 긍정적일수록 청년층이 AI 서비스를 많이 사용한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년층이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AI 서비스 사용의 이점을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에서 디지털 또는 AI 기술을 접했을 때 실제로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며 편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결국 AI 사용 의도를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19]. 즉, 청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및 AI와 관련한 기술적인 교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은 주로 코딩 또는 SW 개발 중심의 공급자식으로 이루어져 실제 사용자가 유용성과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AI 서비스와 관련한 디지털 및 AI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AI 리터러시 교육, 즉 청년층이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및 AI 기술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될 수 있다면 청년층이 AI 서비스를 더욱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본 연구에서 교육 수준이 대졸 이상일 때, 월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청년일수록 'AI 고사용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여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AI 사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유료로 사용해야 하는 모델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소득 수준이 낮거나 다양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에서 소외된 청년들은 생성형 AI 서비스 중 유료 모델을 이용함에 있어 물리적, 인지적인 접근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새로운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물로 작용하여 향후 청년층 내에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고착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청년층 내에서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의 격차를 완화하여 미래 청년층의 삶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저소득층 및 교육 환경에서 소외된 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 청년센터 및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이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필요성 증가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다 [4]. 하지만 지속적으로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은 기간적으로도, 예산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특정 장소에서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센터 또는 공공도서관 내에서 유료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면 청년센터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유료형 AI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AI 서비스 사용에 따른 이질적인 집단을 분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는 전체 청년층 중 AI 서비스를 사용한 청년층에 국한하여 결과가 도출된 것이기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전체 청년층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상의 한계로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의 변수는 객관적인 차원에서 청년층의 디지털 및 AI 활용 역량을 측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 자기보고식 문항의 주관적인 차원에서 측정이 이루어졌기에 실제로 청년층이 보유한 기술적 능력과 응답한 결과에서의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2024년 특정 시점에 수집된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AI 서비스 잠재프로파일 유형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단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AI 서비스 사용 변화 및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활용한 AI 서비스 활용 빈도는 교육, 주거, 편의, 금융 등 8개 영역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을 유형화하였는데 각 AI 서비스 영역에 따른 고유한 특성이나 난이도에 따른 세밀한 활용 차이는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AI 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은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교육기관, 민간기업 등에서는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층이 AI 서비스를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년층이 AI 서비스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됨으로써 청년층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I Connects 57 People to Jobs Daily: Expansion of AI Employment Services Directly Selected by Youth and Companies", March. 2026.
- [2] Korea Press Foundation, "Media Users in Korea 2025", December. 2025.
- [3]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nalysis of Generative AI Service Usage by Age Group", Vol. 25, No.6, pp.4-6, July. 2025.
- [4] U-PAGE, <https://www.ulsan.go.kr/s/ulsanyouth/main.ulsan>.
- [5] SeSAC, "SeSAC Homepage," <https://sesac.seoul.kr/sesac/course/online/courseList.do>.
- [6] LG Aimers, "LGAimers Homepage," <https://www.lgaimers.ai/>.
- [7] POSCO, "POSCO Youth Academy Homepage," <https://youth.posco.com/posco/edu/index.php?mod=academy&pag=academy01>.
- [8] MicroSoft AI Economy Institute, "Global AI Diffusion Q1 2026 Trends and Insights", pp.1-21, May. 2026.
- [9] S. H. Joo., Y. S. Lim, Y. B. Kim.,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Discontinuation of Generative AI Use",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Vol.25, No.12, pp.1-185, December. 2025.
- [10] S. H. Baek,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Use of AI Services",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10, No.10, pp.423-433, October. 2024.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4.10.32>.
- [11] S. H. Hong, "Factors Influencing Koreans' Intention to Use AI-based Healthcare Servi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August. 2024.
- [12] L. M. Collins and S. T. Lanza,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New Jersey: Wiley, 2009.
- [13] K. Holloway, N. Bhullar, and N. S. Schutte,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dispositional hope and defense sty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14, pp. 151-154, 2017. DOI: <http://dx.doi.org/10.1016/j.paid.2017.03.063>
- [14] T. Asparouhov and B. Muthén,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 21, No. 3, pp. 329-341, 2014. DOI: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181>
- [15] L. R. Bergman and D. Magnusson,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9, No. 2, pp. 291-319, 1997. DOI: <https://doi.org/10.1017/S095457949700206X>
- [16] T. Jung and K. A. Wickrama,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Vol. 2, No. 1, pp. 302-317, 2008. DOI: <https://doi.org/10.1111/j.1751-9004.2007.00054.x>

- [17] S. L. Clark and B. Muthén, Relat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to Variable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Los Angeles: Muthén & Muthén, 2009.
- [18] H. S. Choi, "Perspectives on Korean Society 2025: Analysis and Insights", Forum Presentation Paper, 2026.
- [19] W. Wang and Y. Lu, "Survey on Chinese users' acceptance of AI assistants: Expanding technology acceptance model," Scientific Reports, Vol. 15, No. 1, Art. no. 33535, 2025. DOI: <https://doi.org/10.1038/s41598-025-18123-6>
- [20] K. D. Kim., and T. W. Nam., "Determinants of Intention to Use Generative AI: Focusing on Local Youth as Early Adopters,"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Vol.29, No.2, pp.65-95, 2026. DOI: <https://doi.org/10.22896/karis.2026.29.2.003>
- [21] Y. B. Jung, J. M. Park., and H. Y. Lee., "A Study on the Intention to Use ChatGPT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MZ Generation," J Intell Inform Syst, Vol. 29, No. 4, pp.111-127, 2023. DOI: <http://dx.doi.org/10.13088/jiis.2023.29.4.111>
- [22] U. K. No., and S. H. Hong., "Identifying latent profiles in the motivations of adolescents' use of computers and testing the effects of eco-system variable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3, No. 3, pp. 51-76, 2012.
- [23] M. S. Kim., Y. H. Lee., and J. E. Song.,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Care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Focusing on the Famili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Home Care Recipien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44, No. 1, pp. 426-448, 2024. DOI: <https://doi.org/10.15709/hswr.2024.44.1.426>

Authors



Min Soo Kim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4, 2018 and 2022, respectively. Dr. Kim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Seowon University, Chung ju, Korea, in 2025.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Administration, Social Policy, Disaster, and Generation.



Woo Hong Cho Received the Ph.D. degrees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Chosun University, in 2007. Dr. Cho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Seowon University, Chungbuk, Korea, in

2014. The main interesting fields are social welfare and social welfare policy,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elderly welfare, community welfare.